

리얼리즘극 거목 '차범석 학회' 창립

16일 고향 목포서 창립식

차범석전집 봉정식·학술대회도 열려
한국 대표 극예술단체 발돋움 기대

목포 출신 극작가 차범석(1924~2006·사진)은 한국 리얼리즘극의 거목으로 일컫는다. 195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문단에 나온 뒤 '산불', '껌질이 찌지는 아픔 없이는', '육단아' 등 총 64편을 창작했다. 또한 그는 인기드라마 '전원일기', '물레방아'를 집필한 드라마작가이자 수많은 무용극, 뮤지컬 대본, 평론, 에세이 등을 발표한 전방위적인 작가다.

사실주의극의 거목 차범석을 연구하는 전문학회가 목포에서 창립돼 눈길을 끈다.

일반적으로 전문학회가 서울과 수도권에 중심으로 결성되는 것에 반해, 목포를 중심으로 태동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만큼 차범석 자료가 방대한데다가, 고향을 중심으로 연구 자료가 축적돼 있다는 장점이다.

현재 목포에는 지난 2008년 김우진연구회가 창립돼 연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우진연구회에 이어 '차범석학회'가 정식으로 출범하면 목포는 근대극의 선구자와 현대 리얼리즘의 거목을 토대로 극 연구와 극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김우진연구회(회장 김성진 고구려대 교수)와 차범석연구재단(이사장 차혜영)은 오는 16일 오후 3시 목포문화관에서 호남극예술심포지엄 개최와 아울러 차범석학회 창립식을 열 예정이다. 또한 최근 전12권으로 완간된 '차범석전집'에 대한 봉정식도 함께 열려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동안 유족들은 작가의 유훈에 따라 2006년 차범석연구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부터 차범석회극상을 제정, 운영해왔다. 목포시도 목포문화관에 차범석관을 개관해 예술세계를 기렸으며, 지난 2017년부터는 작가의 생가터를 중심으로 '육단아길'을 조성했다.

차범석학회 창립에는 차범석연구재단, 김우진



연구회, 전남연구협회(회장 김진호), 목포연구협회(회장 강대홍) 등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또한 차범석 연구와 선양 작업을 주도해 온 유민영 단국대 명예교수와 관련 연구자 등 다수가 참여했다.

유민영 교수는 "희곡사적 관점에서 유지진에 이어 리얼리즘극을 심화 정착시킨 작가지만 창작 범위의 상상을 초월한다"며 "한국 극예술의 산실 목포를 중심으로 차범석학회가 성장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극예술연구단체로 발돋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창립식에 앞서 진행되는 호남극예술심포지엄에서는 차범석의 예술세계, 대표 작품 고찰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고인의 대표작 '그 여자의 작은 행복론'이 극단 '선장'에 의해 오후 1시30분 참고예술극장(목포시 호남로 58번길 8) 무대에 올려진다.

이후 목포문화관에서 전집 봉정식과 함께 진행되는 심포지엄 개최식에서는 '연극배우가 말하는 차범석' (김성욱 연극배우), '연극연출가가 말하는 차범석' (김삼일 대경대 석좌교수), '희곡작가가



말하는 차범석' (김장일 희곡작가) 등의 회고사와 차혜영 차범석연구재단 이사장의 유족인사, 주화영 뮤지컬 배우의 축하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오후 4시부터는 전국학술발표대회가 개최된다. 먼저 유민영 교수가 '큰 작가 차범석은 어떤 인물인가?'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제1주제 '차범석의 삶과 예술'은 전성희(명지전문대 교수)가 발표를 하며 김영학(조선대 교수)이 토론자로 나선다. 전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그가 가장 애착을 가졌던 분야는 연극이지만 그의 뛰어난 극작술과 다양한 예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장르의 대본을 창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연극 이외의 분야에도 적지 않은 창작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2주제는 최상민(조선대 교수)이 '차범석 희곡 '껌질이 찌지는 아픔 없이는' 고찰'을 발표한다. 최 교수는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그리면서도 인간으로서의 신뢰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그의 작가적 실천 노력의 소산"이라고 강조한다.

이후 종합 토론 시간에는 정철 동신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다양한 담론과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학회 창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김성진 고구려대 교수는 "지난 2017년 목포시에서 작품의 원형을 토대로 '육단아길'을 조성한 이후 '핫 플레이스'로 뜨고 있다"며 "이번 창립을 계기로 남도의 극예술이 더욱 풍성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장애인 밴드 '해와 달'이 오는 15일 광주음악진흥센터에서 있을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해와달 제공>

노래가 된 나의 하루

장애인 밴드 '해와 달' 첫 음반 기념
15일 광주음악진흥센터서 콘서트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20~30대 청년들이 밴드를 결성한 지 9년만에 첫 음반을 내고 콘서트를 열어 눈길을 끈다.

밴드 '해와 달'이 첫 음반발매를 기념하는 콘서트 '노래가 된 나의 하루'를 연다. 15일 오후 7시 30분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직홀.

밴드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허승(30·보컬),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윤준희(27·드럼),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은아(24·키보드), 김민국(24·피커션)씨로 구성됐다.

이날 공연에서 선보일 곡은 '나의 하루', '아차아뜨', '반짝이는', '우리집은 팔천원', '택시는 탈 줄 아니?' 등으로 첫 음반에 실린 곡들이다. 김민국씨의 엄마 류진주씨가 만든 가사에 주은아씨의 피아노 선생님이 아예 실례가 곡을 붙였다.

밴드는 은아씨와 민국씨의 만남으로 시작됐다. 자폐성장애를 갖고 태어난 은아씨는 어렸을적부터 피아노를 통해 음악치료를 해왔고 광주시립장애인 복지관 음악수업에서 민국씨와 만나 밴드의 기초를 닦았다.

2010년 정식으로 결성된 밴드는 중간에 드러머가 김하람씨에서 윤준희씨로 교체됐고 허승씨가 합류해 4인조 밴드로 재편성됐다. 밴드는 2010년 창단 이후 2015년에 첫 콘서트



를 개최하고 전국의 각종 축제와 행사에 참가해 50차례가 넘는 공연을 펼쳐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최 '전국장애인행복나눔페스티벌'에서 은상 등 10여차례의 수상으로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음반은 전남음악창작소의 지원으로 발매했으며 이번 콘서트는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의 2019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해와 달의 대표이자 은아씨의 엄마인 송미영씨는 "밴드 멤버들을 장애인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저 표현방식이 조금 다른 사람으로 봐주길 바란다"며 "사람마다 생김새와 성격이 다르듯이 멤버들도 그러한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다"고 말했다.

"멤버들이 모두 하나같이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요. 각각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본인들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만큼 음악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밴드를 장애인들로 구성된 단체가 아닌 그저 음악하는 뮤지션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컬 허씨는 "콘서트를 앞두고 멤버들 모두 공연을 위해 밤낮없이 연습을 하면서도 행복해한다"며 "가족들을 비롯해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쪽빛 남도에서 발견한 '나에 관한 성찰'

전남여성가족재단 29일까지

김정아 '전라도 사랑, 온새누리' 전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오는 29일까지 전남여성문화박물관에서 김정아 작가의 '전라도 사랑, 온새누리' 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김 작가의 개인전으로 전남여성문화박물관 기획전시 공모전 '전라도에서 찾은 나'의 당선작을 선보이는 자리다.

작가는 '전라도 사랑, 온새누리'라는 제목을 통해 전라도를 떠나본 적 없는 작가의 지역에 대한 사랑을 전달한다. 또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곁을 지키는 전라도의 자연에서 작가의 정체성을 찾아보고

자 하는 의미도 담았다. 김 작가는 목포대 미술학과에서 서양화와 조소를 전공했다. 김 작가는 "쪽빛 남도의 대지에서 서서 발견한 '나'에 관한 성찰과 구상을 작품에 담았다"며 "그 동안 작품을 전시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 공모전 당선을 시작으로 앞으로 활발한 작품활동을 이어가며, 자주 지역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전시기간 중에는 김 작가와 함께하는 여성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민과 여성문화예술을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남여성문화박물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관람 가능하며, 20인 이상 단체 관람 시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 단독 진행이 가능하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문화예술위, 전국 대학생 대상
문화누리카드 슬로건 공모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전국 대학생 대상 2019 문화누리카드 슬로건 및 영상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4일부터 12월 8일까지 개최한다.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열리는 '대학생 문화누리카드 슬로건 및 영상 공모전'은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문화누리카드의 매력'(슬로건 분야), '만약 나에게 문화누리카드가 주어된다면'(영상 분야)을 주제로 진행된다.

접수된 작품은 4개의 심사기준(활용성, 표현력, 독창성, 적합성)에 맞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각 1편·영상100만원, 슬로건 30만원) ▲최우수상(각 1편·영상 50만원, 슬로건 20만원) ▲우수상(영상 2편·각 30만원, 슬로건 3편·각 10만원)을 선정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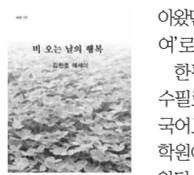
광양 출신 김한호 수필가 에세이집 '비 오는 날의 행복' 펴내

광양 출신 김한호 수필가가 에세이집 '비 오는 날의 행복'을 펴냈다.

모두 40여 편의 글은 일상에서 느끼는 단상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담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행복한 삶을 위한 에세이를 통하여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 오는 날의 행복'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은 모두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 '생활 속에 행복 찾기', 제2장 '변방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제3장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제4장 '살



아왔던 날들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루어져 있다.

한편 1994년 '한국수필'에 수필로 등단한 저자는 경상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남도육정 장학사, 중·고교 교장을 두루 역임했으며 에세이집 '춤추는 꽃', 연구서 '슬픈 시인의 노래', '백조 문학의 이해' 등 다수의 책을 발간했다. 지난해 에세이집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해야지'로 세종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작은만큼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OK 당구장 동구 대인동 220 대인농협 옆 (가오루대 지하) 포켓대 당구대설치, 최신시설완비 냉난방 완비 친절, 신용 분위 ☎ 010-8005-0188	완도전복 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 010-2831-9257	해동공인중개사부동산컨설팅 나주시 산포면 468-4(산포면사무소 입구) 토지·임야·주택·아파트·땅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 061-337-8244, 010-3626-9040	명품구두수선전문점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점동 동양빌딩앞 명품가방수선 골프가방수선 등산화수선 전문점 ☎ 010-2087-3592	현대목공예사 북구 신안동 239-2 (전대정문사거리) 목공예, 서각현판, 각종 원목침대, 서예부품 ☎ 062)523-0408, 010-2631-0408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 동구 호남동 13-3 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환영!! 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터 ☎ 062)232-0038, 010-2290-0038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죽공예 수업 및 주문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 010-3906-1718	태극익스프레스 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구니 무료 친절, 신용, 분위 ☎ 062)222-2424, 011-664-2202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 062)432-1324	광주갤러리경매장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후문앞 철종은빌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2시부터 ☎ 010-6778-9330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 062)263-5383, 010-6338-5383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사주·운세·공합·택일 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 010-9866-2332	청강창호 북구 청계로 67(용봉동) 현대하이사시 + 피엔에고사시 제작설치전문 ☎ 062)528-7711, 010-3612-9794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 062)526-5475, 010-8621-5959	클로버부동산 북구 필문대로11번길 6 (동향동) 모든 부동산 사고 팔니다. 임야, 전답, 토지, 상가건물 재건축·재개발 매매·임대 ☎ 010-5707-6676		